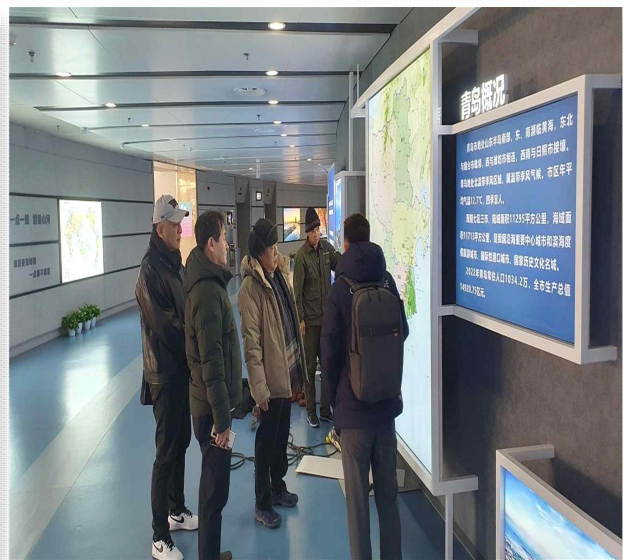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 <중국 호화호특시&청도시>

(2023. 12. 20. ~ 12. 24.)



2024.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들어가는 글

- 출장지역 : 중국 호화호특시(呼和浩特市), 청도시(青岛市) 일원
- 출장기간 : 2023. 12. 20. ~ 12. 24.
- 출장목적 : 우리구와 국외 자매결연의 연을 맺고 있는 중국 호화호특시를 공식 방문하여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유지하고 양 도시 간의 상생적 협력발전 및 의정활동 비교학습을 적극 실행함과 동시에 청도시 등 중국 선진도시를 함께 방문함으로써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악의 발전에 힘쓰고자 함
- 보고목적 : 중국 현지 당정 시스템 등 정치 분야, 중국 현지 박물관의 문화관광 홍보방안, 항일운동 등 역사교육,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등 사회 전반 사항 등에 관하여 중국 호화호특시와 청도시의 정책 등과 관련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방문한 점들을 토대로 보고하고자 함
- 보고서 작성 : 2023년 관악구의회 국외 자매결연도시 출장단
- 출장자 : 4명

연번	직위	성명
1	의장	임춘수
2	부의장	민영진
3	의장비서실장	김완석
4	주무관	이인태

목 차

들어가는 글 1

1. 공무국외출장 개요 3

2. 출장도시 주요 현황 5

3. 방문기관 및 탐방 보고서 8

나오는 글 21

참고문헌 22

1 공무국외출장 개요

□ 출장개요

- 출장지역 : 중국 호화호특시(呼和浩特市), 청도시(青岛市) 일원
- 출장기간 : 2023. 12. 20.(수) ~ 12. 24.(일) / 4박 5일
- 출장인원 : 4명

연번	직위	성명
1	의장	임춘수
2	부의장	민영진
3	의장비서실장	김완석
4	주무관	이인태

- ◆ 단 장 : 임춘수(관악구의회 의장)
- ◆ 기 획 : 민영진(관악구의회 부의장)
- ◆ 수행직원 : 2명
 - 김완석(의장비서실장), 이인태(주무관)

○ 주요임무(공통)

- ◆ 출장지 방문기관별 원활한 주요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진행사항(질의사항 등) 사전 준비
- ◆ 출장지 정책 우수사례 수집 및 정리
- ◆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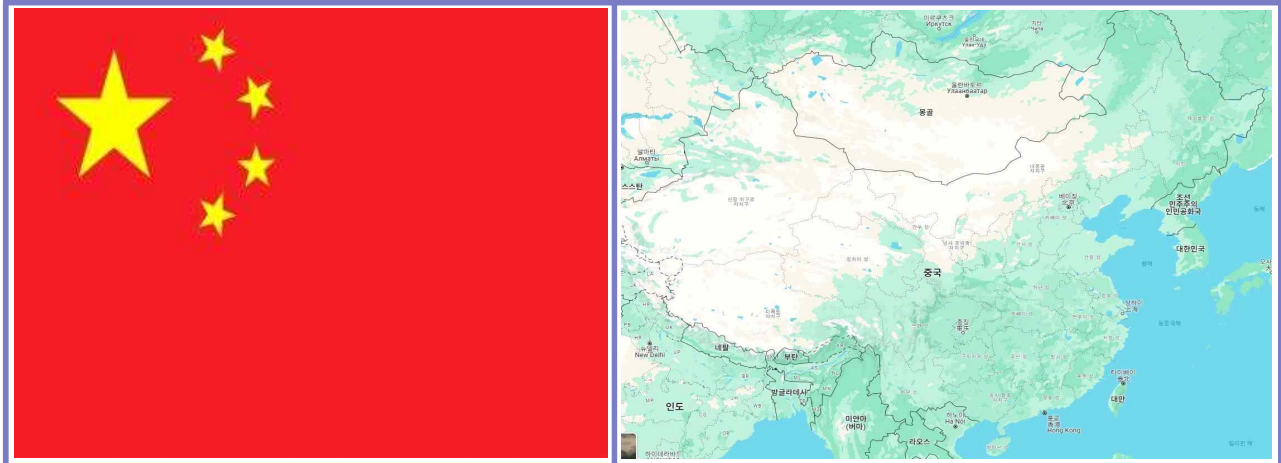
□ 출장 세부일정

일자	시간	도시	주요일정	비고
1일차 12.20.(수)	10:00	인천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항공(KE0845)
	13:05		○ 인천 국제공항 → 청도 국제공항 출발	
	13:40	청도	○ 청도 국제공항 도착 및 환승 대기	항공(CZ6934)
	16:50		○ 청도 국제공항 → 호화호특 공항 출발	
	19:10	호화호특	○ 호화호특 공항 도착	
	20:00		○ 숙소 도착	

2일차 12.21.(목)	11:00 15:00	호화호특	○ <u>내몽골박물관 견학</u> - 박물관 운영 관련 조성상황 확인 및 홍보방안 확인 - 몽골과 중국의 역사문화 등 학습 ○ <u>호화호특시 인민정부 청사 방문</u> - 호화호특시 당 서기 및 정부 관계자 등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 - 중국 현지 당정 시스템 비교학습	
3일차 12.22.(금)	10:30 13:30 15:40 17:30 20:00	호화호특 청도	○ 호화호특 공항 도착 ○ 호화호특 공항 → 청도 국제공항 출발 ○ 청도 국제공항 도착 ○ 청양 야시장 탐방 - 청도 지역 재래시장 방문을 통한 지역상권활성화 현황 확인 및 재래시장 지원방안 학습 ○ 숙소 도착	항공(SC4695)
4일차 12.23.(토)	11:00 15:00	청도	○ <u>청도 도시계획관 방문</u> - 청도의 도시건설사 학습을 통한 근현대 청도 건축사와 대한민국 건축사와의 비교학습 ○ 5·4광장 견학 - 중국 항일운동사 학습을 통한 대한민국 항일운동사와의 비교학습 - 항일운동 관련 사적 보존관리 현황 벤치마킹	
5일차 12.24.(일)	08:00 14:00 16:10	청도 인천	○ 청도 국제공항 도착 ○ 청도 국제공항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이륙 지연(10:55→14:0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항공(KE0846)

2 출장국가 및 주요 출장도시 현황

□ 출장국가 : 중국(中國 / CHINA)



중국	대한민국의 서쪽에 넓게 위치해 있는 국가인 중국은 약 14억 명이 넘는 인구를 아우르고 있는 55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오늘날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수도	베이징
인구	1,425,671,352명(2023년 중국 국가통계국 기준)
면적	9,640,821km ²
기후	하이난 : 열대기후(연평균 기온 26℃, 연평균 강수량 1,600mm) 화남 : 아열대기후(연평균 기온 22℃, 연평균 강수량 1,600mm) 화북 : 온난기후(연평균 기온 16℃, 연평균 강수량 750mm) 서안 : 고원기후(연평균 기온 14℃, 연평균 강수량 500mm) 내몽골 : 냉대건조기후(연평균 기온 7℃, 연평균 강수량 400mm)
종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등
언어	중국어
정치체제	공산주의
통화	¥(위안, CNY)
시차	-1시간
국기	‘오성홍기’라고 하며 본래 구 소련 국기와 같이 낫과 망치가 그려져 있었으나 현재는 별만 남아있다. 중앙의 큰 별은 중국공산당, 나머지 4개의 작은 별들은 노동자, 농민, 소자산계급, 민족자산계급을 의미하며 1949년 10월 1일 중국 건국과 동시에 정식 국기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 출장도시 ① : 호화호특시(呼和浩特市 / Hohhot)



호화호특 [呼和浩特市, Hohhot]	중국 내몽골자치구의 중심 역할을 하는 시로서, 중국어식 발음으로는 ‘후허하오터’로 불리운다. 호화호특이라는 도시명의 의미는 ‘푸른 도시’로서 여름철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호화호특의 모습을 상징한다.
인구	3,446,100명(2020년 중국 국가통계국 기준)
면적	17,186km ²
민족분포	한족 87%, 몽골족 10% 등



□ 출장도시 ② : 청도시(青島市 / Qingdao)



청도 [青島, Qingdao]	중국 동부 산둥반도에 위치한 항구도시로서, 중국어식 발음으로는 ‘칭다오’로 불리운다. 청도라는 도시명은 단어 뜻 그대로 푸른 섬이라는 뜻이나, 실제로는 섬은 아니고 해안에 위치한 도시로서 오랜 세월간 해양문화를 접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인구	10,071,700명(2020년 중국 국가통계국 기준)
면적	11,067km ²
민족분포	한족 99%, 조선족 0.5% 등



3 방문기관 및 탐방 보고서

[공식기관 방문]

① 내몽골박물관 방문

[박물관 운영 관련 조성상황 확인 및 몽골과 중국의 역사문화 학습]

□ 방문사항



내몽골박물관

방문일시	2023.12.21.(목) 11:00
주 소	27, Xinhua East Street, Xincheng District, Hohhot
기관소개	내몽골박물관은 1957년에 건축된 대형 박물관으로서 내몽고의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를 한 데 아우르고 있는 기관이다. 내몽고지역에서 뿌리내렸던 수많은 동식물 및 인류 문명의 발판지로 삼거나 영향을 끼친 민족의 역사문화를 접할 수 있는 학습공간이라 할 수 있다.
방문목적	박물관 운영 관련 조성상황 확인 및 몽골과 중국의 역사문화 학습

방문내용 [브리핑]	브리핑) 먼저, 우리 내몽골자치구 호화호특시 외사판공실의 요청으로 대한민국에서 방문하여 주신 귀빈 분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영광이라 생각하고 박물관과 관련된 내몽골지역의 특성 소개를 드리며 라운딩을 하겠음. 우리 내몽골자치구는 지역의 특성상 북쪽으로는 몽골과 러시아, 남쪽으로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같은 중국 중심도시, 서쪽으로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있는 등 다양한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을 담고 있는 특색이 있어 단 한 가지만으로 그 특성을 단정지을 수 없는 특별한 지역임. 자연적 특성을 설명하자면 평균 해발고도는 1,050m이며 중온대 건조 및 반건조 대륙성 계절풍 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은 3.5℃ ~ 8℃, 연평균 강수량은 330mm ~ 450mm을 보이고 있음. 역사적 특성으로는 북쪽은 드넓은 초원이, 남쪽은 황하가 있어 오랜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음. 약 70만 년 전 유적지인 ‘대요문화’, BC 4세기 전국시대에 건축된 중국의 가장 오래된 ‘조장성’, 및 ‘호한왕조’가 있음. 내몽골은 이처럼 초원문화 및 황하문화, 유목문화, 농경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러한 특성을 내몽골박물관이 수많은 표본과 유물로 전하고 있음.
-----------------------	---

질의답변	질의) 호화호특이라는 도시명에 얽힌 유래를 간단히 설명해준다면? 답변) 1572년 명나라 시절 몽골 투무트족의 아라탄 칸이 명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으며 현재 이곳에 터를 잡고 도시를 건설하여 그 이름을 ‘귀화’라고 지었음. “Ku”, “Kuhetun” 등의 발음에서 현대의 “Hohhot”의 원형이 되었음. 질의) 내몽골의 역사에 대하여 간단히 짚어준다면? 답변) 내몽골 지역은 중화민족의 발상지 중 하나이며 고대 중국 북방 소수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음. 10여 개 유목민족이 이 곳에 거주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역사가 길고 영향력이 컸었던 민족은 흉노족, 몽골족 등이 있겠음. 이 중 몽골족은 에르군 강 유역에서 유래하여 1206년 칭기즈칸이 몽골 칸국을 건국하였음. 이후 세월이 흘러 1920년대 중국 공산당의 영향 아래 내몽골 또한 반봉건, 반침략투쟁에 참여하여 마침내 1947년 5월 1일 내몽골 자치정부가 수립되었음.
방문 소감	민영진 부의장) 내몽골박물관의 전시 규모에 눈길이 먼저 갔음. 호화호특을 비롯한 내몽골 지역 자체의 자연적 특성 및 역사적 특성이 다양하기에 그만큼 전시 규모도 큰 것이라 생각됨. 물론 단순히 전시규모가 크다는 장점 하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 분야의 전문 큐레이터와 인류학(역사학) 분야의 전문 큐레이터가 구분이 되어 있고, 내몽골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이어폰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들을 포함한 외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② 호화호특시 인민정부 청사 방문
[호화호특시 당 서기 및 정부 관계자 간담회]

□ 방문사항



호화호특시 인민정부 청사

방문일시	2024.12.21.(목) 15:00
주 소	1, Xinhua Street, Hohhot
기관소개	호화호특시 인민정부 청사는 내몽고자치구의 중심 호화호특시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시 교육국, 시 공안국, 시 교통국 등의 부서로 300만 명이 넘는 주민을 관할하고 있다.
방문목적	호화호특시 당 서기 및 정부 관계자 등 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중국 현지 당점 시스템 비교학습

방문내용 [브리핑]	브리핑) 우리 호화호특시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2012년 8월 국제 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한 바 있음. 지난 8월 관악구의 초청으로 이형술 시정협의회장단이 관악구를 방문하여 임춘수 관악구의회 의장과 함께 스마트 TOD, 농산물 정밀가공, 의료산업 등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추진을 위한 담화를 나누었음. 이에 우리 호화호특시와 관악구의 전통적이고 우호적인 왕래를 강화하고 실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에 임춘수 의장을 비롯하여 네 분을 초청하였으며 기관 간 교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음. 지난 2019년에도 관악구의회에서 우리 호화호특시를 방문하여 박람회 등을 살펴보고 관련 사업을 벤치마킹했던 것으로 기억함. 당시에는 날씨 좋은 9월에 방문하여 푸른 호화호특시를 접하였다면 이번에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호화호특시를 경험하는 것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됨. 2020년 연초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발병한 이후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류가 거의 없어 관계가 끊길 뻔하였으나 이렇게 다시 찾아와주신 부분에서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우정어린 협력관계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임.
-----------------------	---

질의답변

질의) 호화호특시의 행정구역은 어떻게 나뉘는지?

답변) 우리 호화호특시의 행정구역을 분석한다면 크게 4개의 구, 4개의 현, 1개의 기(현급)로 나뉘는데 우선 구로는 후이민구, 위치안구, 신청구, 싸이한구가 있으며 현으로는 튀커튀현, 칭수이어현, 우촨현, 허린거얼현이, 1개의 기는 투모터 좌기가 있음.

질의) 시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데 이를 수반할 수 있는 도시 내 교통수단은 주로 무엇인지?

답변) 과거엔 버스와 택시 등이 주 교통수단이었으나, 2019년 겨울 지하철이 개통되었음. 이외에도 중국 다른 도시와는 철도 및 국내선 항공이 운행중에 있음.

질의) 호화호특시의 지리적 위치가 중국과 몽골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기에 안성맞춤일 듯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이점과 연관이 되어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는지?

답변) 말씀해주신 것처럼 몽골의 유목문화와 중국의 농업문화가 결합 되어 있으며 이는 북방민족 특유의 대담함과 중국 한족 특유의 소박함을 한 데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질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 명소로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 여러분들이 다녀온 내몽골 박물관이 대표적인 명소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 외에도 국가문화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호화호특시 박물관(2개소)이 있으며 천연호수가 있는 하수하이 국립공원, 2,0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살고 있는 대경산 야생동물원 등 여러 명승지가 있음.

	질의) 호화호특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종교인들의 종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우선 호화호특시 민족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몽골족, 한족, 회족, 만주족, 다우르족 등 41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에 따라서 종교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주로 티베트 불교(라마교), 중국 불교, 도교,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등이 있음. 티베트 불교는 몽골족, 티베트족 등이 믿으며 중국 불교의 경우 주로 한족이, 이슬람교는 회족, 위구르 족 등이 있겠음.
방문 소감	임춘수 의장) 이 형 당서기를 비롯하여 호화호특시 정부 관계자 분들의 지극한 환대에 감동을 받아 이에 대한 감사함이 먼저 앞서며 과거에도 그랬듯 호화호특시와 관악구가 앞으로도 좋은 교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임. 개인적으로 중국 호화호특시를 방문하여 본 적이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처럼 한겨울에 새하얗게 뒤덮인 호화호특시를 경험하는 것은 처음임. 날씨도 매우 춥고 눈도 많이 내렸으나 도시 내 주요 도로 및 보행로는 말끔하게 제설이 되어있어 통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인상적이었음. 내몽골박물관 방문 시에 잠시 느꼈었던 점이나, 그 조성 규모가 인상 깊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억에 남아있었는데 내몽골박물관 외에도 여러 다른 박물관이 있다는 설명들을 들으니 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음. 우리 관악구도 문화역사 부분에서 이처럼 외지인들을 사로잡는 매력을 발현할 수 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좋을 듯함.

③ 청도 도시계획관 방문

[근현대 청도 건축사와 대한민국 건축사와의 비교학습]

□ 방문사항



청도 도시계획관 방문

방문일시	2024.12.23.(토) 11:00
주 소	78, Donghai E Rd, Laoshan District, Qingdao
기관소개	청도 도시계획관은 과거의 청도시 건축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설계계획까지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기관이다. 근방의 팔대관과 노산의 모습까지 대형 스크린으로 볼 수 있으며 정해진 시간마다 청도의 건축사를 보여주는 스크린 쇼가 펼쳐져 찾는 이로 하여금 이목을 끄는 곳이다.
방문목적	청도의 도시건설사 학습을 통한 근현대 청도 건축사와 대한민국 건축사와의 비교학습

방문내용 [브리핑]	브리핑) 청도의 건축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림. 우리 청도는 중국의 동쪽 해안에 자리잡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오래 전부터 해양문화의 중심지로서 항만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온 도시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의 항구도시도 청도와 유사한 특징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청도의 경우, 항구도시인 만큼 외국인들이 교류를 위해 자주 드나들기 시작하다 무역상과 같은 상인, 정부의 대사 등 관리들이 정착하여 살면서 외국인 거리가 생기기도 하였고 주변의 건축물 또한 외국에서의 건축물을 본따 지어지기 시작하였음. 특히 청도는 독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독일풍 건축물이 늘어서 있는 팔대관 같은 명소가 생기기도 하였음. 초창기에는 이러한 건축물이나 거리가 서양 열강의 점령지로서의 이미지가 있어 슬픈 역사로 각인되었었으나 오늘날에는 중국의 작은 유럽이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하여 오히려 청도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장점으로 빛을 발하고 있음. 청도의 근현대사를 쉽게 요약하여 표현을 해본다면 외세 열강의 간섭을 잘 이겨내고 풀어내어 오늘날에는 청도만의 특별한 장점으로 살려내어 건축물, 상권, 문화 등의 발전을 이룩한 과정들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음.
--------------------------	---

질의답변

질의) 청도에 독일이 영향을 끼치게 된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청나라 시절인 19세기 말에 독일이 석탄을 채광하고 철도를 놓기 위하여 청도 지역에 발을 내딛었음. 이때 청나라가 청일 전쟁의 여파로 쇠약해져 있었을 시기여서 독일의 간섭을 차단하지 못하였고 서양 열강에 대한 반감이 나날이 생겨나던 중 독일인 선교사가 피살을 당함에 따라 이를 빌미로 하여 독일의 본격적인 침략이 이루어졌음. 이 때문에 1898년에 99년 간 청도 지역 일부를 독일에 임차해 주는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독일이 청도 깊숙이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질의) 팔대관 같은 유럽풍 거리에 대한 대내외 평가는 어떤지?

답변) 아시다시피 팔대관을 비롯한 유럽풍 건물과 도시거리는 건축 양식도 다양하고 아름다워 만국 건축박람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며 특히나 팔대관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구역으로 평가되었을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음.

질의) 도시계획관이라 함은 대체적으로 대중들에게 낯선 기관일 수도 있는데 별도의 홍보방안은 어떻게 수립 중인지?

답변) 도시계획관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박물관이나 미술관같은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쉽사리 찾는 곳은 아닐 수 있음.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텍스트나 단순 이미지로만 구성하지 않고, 3D 입체물이나 빛을 이용한 시각디자인 등 다채롭고 창의적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함에 따라 방문객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음.

방문 소감	임춘수 의장) 중국 청도의 건축사를 살펴보니 외국 열강의 침략 흔적을 역으로 잘 활용하여 지역 발전 및 상권 활성화에 보태고 있는 듯함.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인 인천이나 부산 등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예시가 있었다면 어떠하였을지 생각을 해봄. 또한 도시계획관은 자칫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들만 찾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으나 청도 도시계획관의 경우 화려한 시각 디자인과 관람객의 이목을 사로잡는 청도의 전경 조각 등으로 어린 학생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조성한 점이 인상깊었음. 마지막으로, 청도의 위치가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해상 교역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함.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통하여 한국-중국-일본 동북아 3개국의 교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전세계의 수많은 국가와 해상교역을 하여 다같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봄.
-------	---

□ [주요 시찰지역 탐방]

① 청양 야시장 탐방

[청도 지역재래시장 방문을 통한 지역상권활성화 현황 확인]

□ 탐방사항



청양 야시장

방문일시	2023.12.22.(금) 17:30
주 소	136, Zhengyang Street, Chengyang District, Qingdao
기관소개	청양 야시장은 청도를 대표하는 재래 야시장으로서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 포장마차뿐 아니라 의류, 완구 등 다양한 물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장이다. 재래시장이라 하여 중장년층의 연령대만이 찾는 것이 아닌 젊은 세대도 찾는 시장거리이다.
방문목적	청도 지역 재래시장 방문을 통한 지역상권활성화 현황 확인 및 재래시장 지원방안 학습

② 5·4광장 탐방

[중국 항일운동사 학습을 통한 대한민국 항일운동사와의 비교학습]

□ 탐방사항



5·4광장

방문일시	2023.12.23.(토) 15:00
주 소	396M+RW6, Donghai W Rd, Shinan District, Qingdao
기관소개	5·4광장은 중국 항일운동의 상징과 같은 5·4운동을 기리기 위한 광장이다. 5·4운동이란 청도가 독일에 의해 점령되었던 것이 중국에 다시 반환되길 바라며 중국인들이 1919년 5월 4일 일본을 상대로 투쟁한 항일운동이며 5·4광장을 대표하는 붉은 건축물은 회오리바람처럼 거세고 빠르게 번져가는 투쟁을 뜻한다.
방문목적	중국 항일운동사 학습을 통한 대한민국 항일운동사와의 비교학습

나오는 글

본 출장은 4박 5일의 기간 동안 중국 호화호특시 및 청도시를 방문한 출장으로서, 우리 관악구와 국외 자매결연도시인 호화호특시 인민정부의 공식 초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호화호특시에서는 중국과 몽골로부터 받은 영향을 오랜 세월 간 담아온 인류학, 자연사 등을 한 눈에 학습할 수 있는 대표 박물관인 내몽골박물관을 방문하였으며 박물관의 전시규모를 통해 인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가늠할 수 있었으며, 전문 큐레이터를 통해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호화호특시 인민 정부를 방문하여서는 호화호특시 당 서기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자칫 코로나19로 인하여 끊길 뻔하였던 양 지방자치단체의 우호협력이 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홈스테이 및 시정/의정 활동 관계자들의 상호 방문을 통한 협력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라는 담화를 나눌 수 있었다.

청도시에서는 청도 도시계획관을 방문하여 청도시의 아픈 근현대 건축사를 학습할 수 있었으며 비단 아픈 과거로 담아두지 않고 오히려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사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조롭지 않고 참신한 발상으로 작품 디자인을 하여 운영함으로써 젊은 세대나 어린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흥미를 가지고 찾을 수 있게끔 홍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출장내용을 토대로 하여 관악구와 중국 호화호특시의 기존 우호협력을 더욱 증대시하고, 보다 가까운 청도시에도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할 사향을 깊게 찾아나섬으로써 우리 관악의 발전과 50만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홈페이지]

내몽고자치구 인민정부 : <https://www.nmg.gov.cn/>

청도 인민정부 : <http://www.qingdao.gov.cn/>